

열공 Tip! - 언어의 창조성과 언어의 역사성

‘창조성’이란 어감 때문인지 단어의 생성을 ‘창조성’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어의 생성은 ‘역사성’(없던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창조성’은 한정된 단어 내에서 새로운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 내는 언어의 특성(기존에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무한히 많은 문장들을 조합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야.

⑤ 언어의 창조성 중요도 | 🍀🍀🍀🍀🍀

: 한정된 단어로 무한한 단어와 문장을 만들고,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주의 할 점은, 없던 단어를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단어에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예) 나는 낮에 밥을 먹는다. 아이는 잠을 잔다. → 나는 낮에 잠을 잔다.
이처럼 두 문장만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을 ‘언어의 창조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⑥ 언어의 사회성 중요도 | 🍀🍀🍀🍀🍀

: 언어는 사회적 약속체계이므로, 개인이 사회와의 동의 없이 함부로 언어를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 내가 ‘지우개’를 ‘김치’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지우개’를 ‘김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⑦ 언어의 역사성 중요도 | 🍀🍀🍀🍀🍀

: 사회가 변하듯, 언어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크게,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생성은 없던 개념을 서술할 새로운 단어를 말하며, 발전은 의미 변화, 소멸은 언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방송(放送)은 현재는 방영을 의미하지만, 과거에는 ‘죄인을 감옥에서 나가도록 풀어주던 일’을 의미했어요. 세월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게 되었죠.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비문학(언어)

인간은 세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심리 구조는 언어 표현에도 반영된다. 예컨대 시간이나 공간에 관한 한 쌍의 단어를 열거할 때 화자에게 더 가까운 것을 먼저 들고 더 먼 것을 나중에 든다. ‘내일오늘’이 아니라 ‘오늘내일’이라 하고 ‘저기여기’가 아니라 ‘여기저기’라 하는 것은 ‘나’에게 가까운 ‘오늘’과 ‘여기’를 먼저 말하기 때문이다. ‘아빠 엄마’가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에서 더 가까이 느껴지는 엄마를 먼저 표현하기 때문이다.

[A] 이른바 사운유(死隱喻)의 대부분이 신체 일부의 이름을 빌려 쓰는 현상도 화자의 심리를 반영하는 언어 표현이다. 바늘에서 실을 꿴 부분을 ‘바늘귀’라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인 ‘귀’를 빌려 바늘의 특정 부분을 표현하고자 하는 데서 나왔다. 영어에도 ‘eye of a needle’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은, 신체 부분이 화자와 가장 가깝고 친숙한 것이므로 이를 빌려서 사물을 표현하는 현상이 범언어적임을 말해 준다.

[B] 사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그 언어 표현에는 상응 관계가 있다. 그리하여 단순한 개념은 그 표현도 단순하고, 복잡한 개념은 그 표현도 복잡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람’에 ‘들’을 붙여 복수 개념인 ‘사람들’을 표현하지, 어떤 복수 개념을 나타내는 말에 일정한 형태소를 첨가하여 단수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다. 또한, ‘하다’에 ‘안’을 더해 ‘안 하다’라는 표현을 형성하거나 ‘do’에 ‘not’을 더하여 ‘not do’라는 표현을 만들지만, 그 반대의 표현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언어 표현은 인간의 심리 구조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그 단위를 분리시키거나 중단시키는 것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통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 끼어들고 싶을 때, 사람들은 화자가 말하는 중간에 아무데서나 끼어들지 않고, 적어도 한 문장이 끝났을 때를 기다려 자기 말을 한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도 문장 중간이 아닌 주어와 술어의 경계에서 휴지(休止)를 갖고, 단어의 중간이 아닌 단어와 단어의 경계에서 “어-, 어-” 하는 말을 삽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한 단위를 분리 혹은 중단시키지 않으려는 심리 작용이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가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 청색과 녹색을 ‘푸르다’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 색을 구별하여 인식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색채어가 그다지 많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색채어가 풍부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색에 대해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심리 작용이 언어의 구조와 관계없이 어떤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말해 준다.

실전문제유형

40. 위 글은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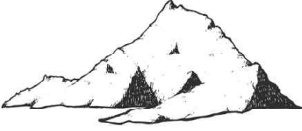
- ① 언어가 인간의 심리를 결정하는가?
- ② 언어와 인간의 심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③ 언어 표현이 사고력 향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④ 인간의 의식이 언어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언어 구조가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41. [A]의 논지로 볼 때, ‘바늘귀’와 같은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입방아를 찧다.
- ② 말허리를 자르다.
- ③ 상다리가 부러지다.
- ④ 병목 현상이 생기다.
- ⑤ 치마가 버선코를 가리다.

42. [B]의 논지를 보강할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대명사 ‘너, 저’에 ‘-회’가 붙어 ‘너회, 저회’가 만들어진다.
- ② 양수사 ‘셋, 넷’에 ‘-째’가 붙어 서수사 ‘셋째, 넷째’가 만들어진다.
- ③ 예사말 ‘사장, 과장’에 ‘-님’이 붙어 높임말 ‘사장님, 과장님’이 만들어진다.
- ④ 동사 어간 ‘오-, 가-’에 ‘-라, -자’가 붙어 활용형 ‘오라, 가자’가 만들어진다.
- ⑤ 능동사 ‘보다, 막다’에 ‘-이-, -히-’가 붙어 피동사 ‘보이다, 막히다’가 만들어진다.



43. 두 문장의 논리적 관계가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탄로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긴장과 두려움으로 자율신경계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다.
- ② 운동이 언제나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체내에 활성 산소가 축적되어 노화를 촉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③ 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며, 인권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④ 언어가 갖는 현실의 창조와 사람됨의 창조, 이 두 기능은 서로 불가분의 필연적인 보충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로 이루어지고, 이 두 세계는 서로 대응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속담은 화용론적 부차 기능이 생생한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속담으로 쓰인 효과를 완성시킨다. 왜냐하면 속담의 일차적 기능이 비유에 있다 하여 특정한 사실에 대한 비유적 서술만으로 속담이 수행해야 할 모든 기능을 끝마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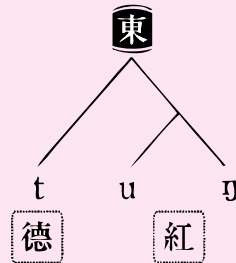


- ①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입술을 둥그랗게 오므려야 해.
- ②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해.
- ③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소리 내는 동안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말아야 해.
- ④ ‘개’를 발음할 때는 ‘개’에 비해 입술을 더 평평하게 하고 입을 조금만 벌려야 해.
- ⑤ ‘개’를 발음할 때는 ‘개’와 달리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발음해야 해.

2012학년도 수능 비문학(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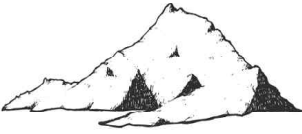
조선 시대 역관들에게는 중국의 한자음을 정확히 익히는 일이 중요했다.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 사전인 운서(韻書)에서 한자음을 초성과 중·종성으로 이분하여 이를 두 개의 한자로 표시하는 반절법을 사용했다. 아래 그림처럼 한자 ‘東’(동)의 발음을 중국의 운서에서는 반절법에 의해 ‘德’(덕)의 초성[t]와 ‘紅’(홍)의 중·종성[un]을 이용해 표시했다. 이때 ‘德’과 ‘紅’ 대신에 다른 한자들이 사용될 수도 있었으며, ‘東’이 다른 한자들의 발음 표시에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발음 표시 방식은 조선의 역관들이 중국의 한자음을 학습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했다.

반면 『사성통해』와 같은 조선의 운서에서는 한글로 발음을 표시했고,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중국의 한자음을 익힐 수 있었다. 『사성통해』에서는 한자 ‘東’의 발음을 한글 [둥]으로 표시했는데, 이는 음소 문자인 한글의 표음성을 이용해 중국의 한자음을 적은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반절법과 달리 한자의 발음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표시한 것으로, 이때 한글은 일종의 발음 기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글의 표음성은 별도의 발음 기호가 없었던 시대에는 매우 유용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발음 기호와 완전히 동일한 차원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다. 우리가 영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기 위해 사전의 발음 기호를 참조하는 것은 일반 문자와 발음 기호가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알파벳에 비해 표음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한글의 경우에도 이상적인 발음 기호에 요구되는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표음 문자는 언어의 음성적 차원이 아닌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는다. 이를테면 ‘부부[pubu]’의 경우 음성적 차원에서 무성음[p]와 유성음[b]로 발음하는 것을 음소적 차원에서는 모두 ‘ㅂ’으로 표시한다. 이것은 출현 환경이 다른, 어두의 [p]와 모음 사이의 [b]가 국어 화자들에게는 동일한 말소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가구’의 ‘ㄱ’, ‘다도’의 ‘ㄷ’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한글의 표음성은 국어 화자들의 ‘예민한 귀’보다는 ‘지혜로운 머리’에 맞춰진 합리성을 보여 준다.



실전문제유형

4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한자를 이용해 표시했다.
- ② 『사성통해』에서는 반절법으로 한글의 발음을 표시했다.
- ③ 조선 시대 역관들의 외국어 학습에서도 한글이 사용되었다.
- ④ 조선 시대 한글은 한자에 대한 발음 기호의 역할도 수행했다.
- ⑤ 이상적인 발음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41. ㉠의 이유를 추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절 표시에 사용된 한자의 정확한 발음을 모르면 읽고자 하는 한자의 발음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 ② 어떤 한자가 둘 이상의 발음을 가질 때에는 그 발음을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 ③ 동일한 한자가 발음 표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 ④ 동일한 한자의 반절 표시에도 다양한 한자들이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 ⑤ 두 한자의 발음을 조합해야 전체 발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4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일반 문자와 달리 국제 음성 기호는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다음은 같은 말소리를 한글과 국제 음성 기호로 표기한 것이다.

A : [고궁이 크다]

B : [kogunikhida]

- ① A와 B를 비교해 볼 때 한글의 표음성은 음소적 차원과 관련되는군.
- ② A는 일반적인 문자 표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말소리의 음성적 특성을 B보다 잘 반영하는군.
- ③ A의 ‘ㄱ’은 B에서 두 개의 기호에 대응하지만 두 기호의 출현 환경은 같군.
- ④ A의 ‘ㅇ’은 B를 참조해 볼 때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하는군.
- ⑤ B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기했다는 점에서 A에 비해 표음성이 낮군.

2008학년도 수능 비문학(언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음절을 많이 활용한다. ‘이야기 - 기상대 - 대리점’으로 이어 가는 끝말잇기 게임이나 ‘불고기 백반’을 ‘불백’이라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음절을 바탕으로 한다. 음절은 시에서 운을 맞추거나 랩에서 리듬을 맞출 때에 활용되기도 한다.

사람의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음소, 음절 등으로 분절하여 인식한다.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이웃한 자음과 모음의 개구도(開口度, 입의 벌림 정도)를 비교하는 소쉬르의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이 방법에 따라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ㄱ, ㄷ, ㅂ 등)은 0도, 마찰음(ㅅ, ㅆ, ㅎ)과 파찰음(ㅈ, ㅊ, ㅊ)은 1도, 비음(ㅁ, ㄴ, ㅇ)은 2도, 유음(ㄹ)은 3도, 고모음(ㅣ, ㅜ, ㅡ, ㅗ)은 4도, 중모음(ㅓ, ㅕ, ㅛ, ㅝ)은 5도, 저모음(ㅑ, ㅓ)은 6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뒤쪽이 크면 ‘<로, 뒤쪽이 작으면 ’>’로 부등호를 매겨 나가되, 마지막 말소리는 ’>’로 닫는다. ‘동대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말소리	ㄷ	ㄱ	ㅇ	ㄷ	ㅁ	ㅁ	ㅍ	ㄴ
개구도	0	5	2	0	6	2	4	2
부등호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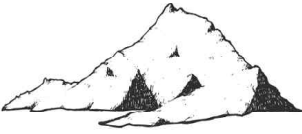
이러한 부등호 배열에서 ’><’ 모양을 갖는 두 부등호 사이가 음절 경계가 된다. 이 경계를 중심으로 음절을 나누면, ‘ㄷㄱㅇㄷㅁㅁㅍㄴ’이 ‘동-대-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 된다. 국어에서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고, 그 앞과 뒤에 자음이 하나씩 올 수도 있으므로, 국어의 음절 구조는 ‘(자음)+모음+(자음)’이 된다. 이러한 음절 구조에서 각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은 제한되기도 한다. 음절 초에는 ‘ㅇ[n]’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n]’ 7개의 자음밖에 올 수 없다. 그리고 음절 초 자음이 ‘ㄷ, ㅌ, ㅌ’이면 모음 ‘ㅏ, ㅑ, ㅓ, ㅕ’가 오지 못한다.

국어의 음절에는 모음이 하나씩 있으므로 모음의 수가 곧 음절의 수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모든 언어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와 같이 [m]이나 [l]같은 자음이 음절의 핵이 되는 언어도 있기 때문이다. 음절 구조가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면 음절의 수나 구조에 변동이 오기도 한다. 영어에서 1음절인 [spring]이 국어에 오면 3음절의 ‘스프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의 구조는 해당 언어의 발음을 지배하는 기본 골격이라 할 만하다.

실전문제유형

3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음이 변화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말소리가 음절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절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국어의 음절 구조를 분석하여 위치에 따라 올 수 있는 요소가 제한됨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언어 접촉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언어에 따라 음절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국어의 음절을 정의할 때, ㄱ~ㄹ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음절은 개구도가 (ㄱ) 모음을 핵으로, 그 앞과 뒤에 개구도가 (ㄴ) 자음이 각각 (ㄷ)까지 올 수 있는 (ㄹ)의 최소 단위이다.

- | | ㄱ | ㄴ | ㄷ | ㄹ |
|---|----|----|----|----|
| ① | 작은 | 큰 | 하나 | 발음 |
| ② | 작은 | 큰 | 둘 | 글자 |
| ③ | 큰 | 작은 | 하나 | 발음 |
| ④ | 큰 | 큰 | 둘 | 글자 |
| ⑤ | 큰 | 작은 | 하나 | 글자 |

33. 위 글로 보아 부등호 배열이 ‘< > < >’의 모양을 가지는 것은?

- ① 가족 ② 다수 ③ 성질
 ④ 승부 ⑤ 우정

2005학년도 수능 비문학(언어)

문자는 사물이나 자연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 문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림 문자를 추상화하고 모양을 간략하게 한 것이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이다. 표의 문자는 하나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해야 했기 때문에 점점 수가 늘어나 기억하기가 불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표의 문자보다 글자 수가 훨씬 적으며, 글자를 의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발음 표시 기호로 사용하는 표음 문자가 만들어졌다. 이 표음 문자는 음절 전체를 하나의 글자로 나타낸 음절 문자와, 더 나아가 자음과 모음 각각을 글자로 나타낸 음운 문자로 다시 나뉜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 중에서 음절 문자에는 일본의 가나가, 음운 문자에는 영어 알파벳이 있다.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음운 문자에 속한다. 그런데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점, 가획을 통해 소리를 자형(字形)과 관련시키고 있는 점 등 매우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 중 특별히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음운 문자와는 별도로 ‘자질 문자’를 설정하고 한글을 여기에 귀속시키기도 한다. 즉, 발음 위치가 같은 쌍인 ‘ㄱ, ㅋ’과 ‘ㄷ, ㅌ’에서 추가된 획은 ‘거셈’이라는 자질을 나타내므로 한글을 자질 문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질 문자’란 명칭은 자질 자체를 글자로 만든 것에 붙여야 한다. 다시 말해, ‘거셈’이라는 자질이 자형에 반영되기만 해서 안 되고, 이 자질이 하나의 독립된 글자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글을 완전한 의미의 자질 문자로 보기는 어렵다.

문자 발달사의 단계가 반드시 문자의 우수성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글이 자질 문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사실 각 문자 부류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의 문자는 음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쉽다는 장점을, 음절 문자는 실제 말소리의 단위인 음절을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음운 문자는 적은 수의 글자로 문자 생활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며, 더욱이 한글처럼 자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으면 자형끼리의 유사성에 의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까지 추가로 가지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글이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문자가 서로 다른 문자 부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예는 흔히 발견된다. 한자는 표의 문자이지만, ‘印度, 伊太利[나라 이름]’처럼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에는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하므로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한글은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한 글자로 모아 씀으로써 문자 운용의 관점에서 보면 음절 문자의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각 단계 문자 부류들이 보여주는 장점들을 다른 문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음운 문자이므로 효율적이고,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배우기가 쉬울 뿐 아니라,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음절 문자의 장점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전문제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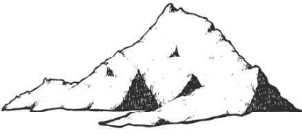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표음 문자는 그림 문자보다 발달된 문자다.
- ② 음절 문자는 음운 문자보다 글자 수가 적다.
- ③ 한글은 몇 가지 문자 부류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 ④ 한자는 외국어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 주로 글자의 음을 이용한다.
- ⑤ 문자 발달사 단계와 문자의 우수성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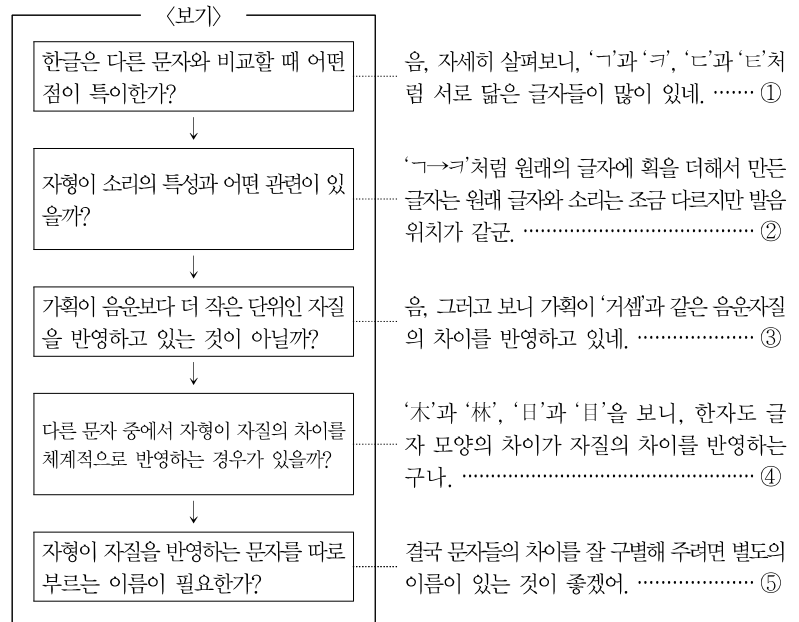
45. 한자와 한글을 대비하기 위하여 위 글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ㄱ~ㄷ에 들어갈 말은?

〈 보 기 〉		
비교 항목	한자	한글
문자 분류	표의 문자	표음 문자 (음운 문자)
자형에 반영된 특성	언급 없음	(ㄱ)
문자 운용에 이용된 특성	(ㄴ)	(ㄷ)

- | | | |
|---------|-------|-------|
| ㄱ | ㄴ | ㄷ |
| ① 자질 문자 | 음운 문자 | 음절 문자 |
| ② 음절 문자 | 음운 문자 | 자질 문자 |
| ③ 자질 문자 | 음절 문자 | 음절 문자 |
| ④ 음운 문자 | 자질 문자 | 음절 문자 |
| ⑤ 자질 문자 | 음운 문자 | 음운 문자 |



46. <보기>는 ㉠과 같이 한글을 자질 문자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제기했음직한 의문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의문에 대한 답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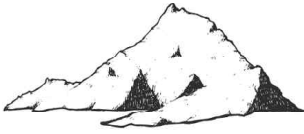


47. <보기>의 조건에 따라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도토리]’라는 발음을 적어 보았다. 알맞은 것은? [1점]

< 보 기 >

- 음운 문자이면서 자질 문자의 특성을 가지게 할 것.
- 모아쓰기를 할 것.

- | | | |
|--------------|--------------|--------------|
| ① □□△ | ② □◇◇ | ③ □□△
××× |
| ④ □□△
××× | ⑤ □○△
××× | |



2011학년도 수능 비문해(언어)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두더’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살살이 들추거나 헤친다는 뜻을 지닌 동사 ‘두더다’(>뒤지다)에서 왔으며, ‘지’는 ‘쥐’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두더지는 ‘뒤지는 쥐’라는 뜻을 갖는 합성어였다.

‘뒤지는 쥐’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뒤지쥐’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뒤지쥐’가 마치 ‘달리는 차’를 ‘달리차’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뒤지는 쥐’나 ‘달리는 차’는 국어에서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된 단위인 구(句)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합성어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된다.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 ‘호두과자’,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한 ‘한번’,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잘생기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 ‘된장’, 체언과 용언이 결합한 ‘낮설다’,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한 ‘접어들다’ 등은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들로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에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들도 있다.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 ‘오르내리다’와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 ‘땀샅’이 그 예이다. 또한 ‘깨끗하다’의 ‘깨끗’과 같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 체언이 결합한 ㉤ ‘어둑새벽’, 그리고 ㉦ ‘귀엣말’과 같이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스’의 결합형이 포함된 단어 등도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두더지>두더지’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숫돌’ 또한 본래 용언 ‘숫다’(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직접 결합해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숫>숫’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숫다’의 소멸로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실전문제유형

37. 위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본래 단일어였던 ‘두터지’는 현재 합성어로 인식된다.
- ② 결합되는 단어의 수는 합성어의 유형 구분에 기준이 된다.
- ③ 구(句)와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은 품사가 바뀌는 언어 변화를 겪었다.
- ⑤ 언어 변화는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38. <보기>와 ㉠을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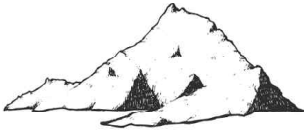
— < 보 기 —

[15세기] 그 새 거우루엣 제 그르멜 보고 (『석보상절』 권 24)
 [오늘날] 그 새가 거울에 있는 제 그림자를 보고

- ① ‘귀엣말’의 ‘귀엣’과 ‘거우루엣’은 그 짜임새가 같군.
- ② 15세기에는 ‘거우루엣 그르멜’과 같은 구성도 자연스럽게 쓰였겠군.
- ③ 15세기라면 ‘귀엣’과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句)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군.
- ④ ‘거우루엣’의 ‘엣’은 오늘날 ‘귀에 걸다’의 ‘에’와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⑤ ‘귀엣말’이 15세기에도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겠군.

39. 다음과 같이 가상의 순화어를 만들 때, ㉠~㉡의 합성어 형성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비꼴 말	재료가 되는 말	방법	가상의 순화어	
샤프펜슬	○가락 ○빼빼하다 ○연필	㉠	가락연필 ①
		㉡	빼빼한연필 ②
스캔하다	○읽다 ○갈무리하다	㉢	읽어갈무리하다 ③
스파게티	○부드럽다 ○새콤달콤하다 ○국수	㉣	부드럽국수 ④
		㉤	새콤달콤국수 ⑤



- ① ㉠ : 몸에도 좋지 않은 걸 왜 먹니?
- ② ㉠ : 내가 바라는 걸 너는 알고 있지?
- ③ ㉡ : 날이 흐린걸 보니 곧 비가 오겠네.
- ④ ㉡ : 그만하면 훌륭하던걸 뭐.
- ⑤ ㉡ : 야, 눈이 많이 쌓였는걸!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문학(언어)

듣는 이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국어의 2인칭 대명사로는 ‘너, 너희, 자네, 당신, 임자, 그대, 여러분, 귀하(貴下), 노형(老兄), 제군(諸君)’ 등이 있다. 이 외에 ‘자기’도 요즈음 젊은 층에서 2인칭 대명사로 자주 쓰이고 있다.

아주낮춤 말인 ‘너’는 말하는 이보다 손아래의 사람에게 쓰거나 미성년 또는 같은 또래의 친한 친구 사이에 쓴다. ‘너희’는 듣는 이가 같은 또래의 친구나 아랫사람일 경우, 그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이룰 때 사용한다. 예사 낮춤 말 ‘자네’는 ‘당신’보다는 낮고 ‘너’보다는 높은 말이다. 듣는 이를 대접하고자 할 때 ‘너’ 대신에 사용한다. 연배가 있는 사람이 친구가 있는 동년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당신, 임자, 그대’는 예사 높임 말이다. ㉠ ‘당신’은 배우자 혹은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쓴다. 이 대명사는 선생, 부모, 상사 같은 아주 높은 분에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아울러 ㉡ ‘당신’은 3인칭 재귀 대명사로도 쓰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임자’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으로 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 쓰인다. 또한 나이가 비슷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 또는 아랫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그대’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의 존대어로서 시(詩)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 주로 쓰인다. 그리고 ‘여러분’은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를 경우에 사용한다.

국어는 원래 아주높임의 2인칭 대명사 형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대신에 친족명이나 직함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아주높임의 대상자에게는 대명사 대신 ‘선생님, 할아버님’ 등의 존대 호칭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고 있다.

일상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예스러운 한자어 ‘귀하, 노형, 제군’ 등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던 말들도 대화 상황은 물론 편지와 같은 문어체 상황에서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자네’의 경우도 하계체의 위축으로 인해 그 쓰임이 줄어들고 있다. 사실,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다.



실전문제유형

41. 위 글의 '2인칭 대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인칭 대명사 중에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를 함께 가리키는 것도 있다.
- ②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도는 2인칭 대명사의 쓰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는 높임의 등급이 구분된다.
- ④ 같은 또래 사이에 쓰이는 2인칭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없다.
- 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마주하는 대화 상황에서 2인칭대명사는 생략될 수 없다.

42. <보기>의 ㉠~㉥ 중,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 < 보 기 > —

한 상무 : 김 부장, 일찍 왔군. 많이 기다렸나?
 김 부장 : ㉠상무님도 때 맞춰 오셨네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나저나 저희
 고모님이 오늘은 좀 늦으시는군요.
 한 상무 : 뭘, 아직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리고 보니 ㉡고모님 뵙는 게 몇 년
 만인가? ㉢우리를 친자식처럼 챙겨 썼지.
 김 부장 : 어, 저기 ㉣내외분이 같이 오시네. 여깁니다. 고모, 고모부!
 고 모 : 어머! 이게 누구야? 한 상무 아니야? 우리 ㉤김 부장 잘 좀 부탁드려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3. 밑줄 친 단어들 ㉠과 ㉡처럼 서로 다른 인칭으로 묶인 것은?

- ① 너 어제 내가 말한 대로 했지?
 일전에 너의 발표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단다.
- ② 난 자기가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어.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다.
- ③ 자네가 바로 우리 회사가 찾던 인재야.
 요즘 자네의 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 ④ 그대가 보여 준 정성은 영원히 잊지 않겠소.
 서영 씨, 환히 웃는 그대 얼굴이 제 머리를 맴돕니다.
- 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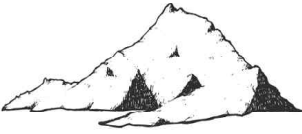


2013학년도 수능 비문학(언어)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용언이 활용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 용언은 서술어뿐 아니라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이면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문법적 기능은 주로 어미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국어 문법 연구에서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미를 그와 유사한 것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어미와 조사는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 어미는 항상 어간과 결합하여 쓰이므로 그 선행 요소인 어간도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 별도의 품사로 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간 +어미’ 전체가 한 단어로 취급된다. 이에 반해 조사는 홀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 조사의 앞에 결합하는 요소(주로 체언)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문맥에 따라 조사의 생략도 가능하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기가 쉽다. 이 점을 고려하여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여 별도의 품사로 설정한다.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은 어미와 접미사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더욱이 접미사 중에는 어간 뒤에 결합하는 것들이 있어 어미와 혼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어미와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지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 ‘읽었고, 읽겠습니다, 읽었느냐, …..’와 같이 용언 어간 ‘읽-’에 어떤 어미들이 결합하더라도 그것은 ‘읽다’라는 한 단어의 활용형일 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활용형들은 별도의 단어가 아니므로 일일이 사전에 등재하지 않으며, 활용형 중 어간에 평서형 종결 어미 ‘-다’를 결합한 것을 기본형이라 하여 이것만을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이에 반해 접미사는 어미와 달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며 이 단어는 사전에 등재한다. ㉣ 파생된 단어의 품사가 파생 이전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동사 어간 ‘먹-’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먹이다’라는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파생 전과 후가 모두 동사여서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먹이’라는 명사가 되어 품사가 바뀐다. 또한 ㉤ 어미는 대부분의 용언 어간과 결합할 수 있는 데 비해 접미사는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실전문제유형

36. 위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대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어려운 개념들을 익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과 관련한 다양한 이견들을 대립시켜 설명하고 있다.
- ⑤ 중심 대상과 다른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37.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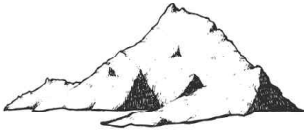
- ①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해야만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 ②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어 쓰일 수 있다.
- ③ 어미는 학교 문법에서 품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 ④ 용언은 특정한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만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 ⑤ 어미는 접미사와 달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지 않는다.

38. <보기>의 ㉠~㉣를 ㉦~㉨의 예로 들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지훈 : 어제 집 앞에서 ㉠지나가는 선우를 ㉡만났어. ㉢병원에 가는 길이
라고 하더라. 많이 좋아졌대.
수진 : 정말? 이제 마음이 ㉣놓이네. 계속 ㉤걱정하고 있었거든.

- ① ㉠ : 문장 내에서 '선우'를 꾸며 주는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② ㉡ : 어간인 '만나-'와 어미인 '-았-', '-어'가 모두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③ ㉢ : 조사 '에'는 생략 가능하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④ ㉣ : 동사 어간 '놓이-'는 '놓-'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⑤ ㉤ : '걱정하-'에 어미 '-고'가 결합한 '걱정하고'는 쓰일 수 있으나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걱정하이-'는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어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도 높임법 차원에서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나이’와 ‘연세(年歲)’, ‘생일(生日)’과 ‘생신(生辰)’, ‘밥’과 ‘진지’ 등의 명사 어휘를 비롯하여 ‘주다’와 ‘드리다’, ‘고맙다’와 ‘감사하다’, ‘미안하다’와 ‘죄송하다’ 같은 동사나 형용사들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단어들도 보이는 높임의 차이는 단어의 종류와 관련이 있어, ㉠ ‘나이’와 ‘연세’처럼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가 비슷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더 높은 말로 쓰인다. 물론 ㉡ ‘생일’과 ‘생신’의 예처럼 같은 한자어끼리도 높임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거나 ㉢ ‘밥’과 ‘진지’처럼 고유어 가운데서도 높임의 정도가 다른 예들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 대화에서 한국어 높임 표현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 여기에는 대화 참가자들 사이의 ‘서열’이나 ‘친분’, 또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서열’이란 화자와 청자의 나이나 직위, 친족 항렬 등의 차이를 말하는 데, 이러한 서열에 따라 높임 표현의 선택이 달라진다. 가령 사과나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쓰는 ‘미안하다’와 ‘죄송하다’의 경우, 상위자에게는 ‘죄송하다’를, 하위자에게는 ‘미안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로, 두 단어가 쓰일 수 있는 높임의 등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미안하다’는 ‘하십시오체’에서부터 ‘해라체’까지 특별한 제약 없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반면, ‘죄송하다’는 ‘하십시오체’나 ‘해요체’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하오체’ 이하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제약이 있다. 이와 같은 높임의 차이는 ‘죄송하다’의 쓰임 영역이 주로 상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미안하다’는 하위자에게도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한국인 화자들이 사회적 신분이 더 높은 사람에 대한 사과의 표현으로 ‘미안하다’보다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서열상으로 높은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와의 ‘친분’, 곧 상대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 선택한다. 따라서윗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같은 윗사람이더라도 친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를 쓸 수 있다. 또한 아랫사람이더라도 별로 친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높임 표현의 선택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즉 평소에는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를 쓰더라도, 회의석상이나 법정에서와 같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죄송하다’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실전문제유형

44. 위 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단어의 선택을 통해 높임을 표현할 수 있다.
- ② 상대와의 친분에 따라 높임 표현이 선택될 수 있다.
- ③ 높임 표현은 화자와 청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④ 한자어는 의미가 비슷한 고유어보다 일반적으로 높임의 정도가 더 높다.
- ⑤ 높임 표현은 화자가 대화 상대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45. ㉠~㉣과 동일한 유형의 사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 |
| ① 술 - 약주 | 말 - 말씀 | 묻다 - 여쭙다 |
| ② 이 - 치아 | 사망 - 별세 | 있다 - 계시다 |
| ③ 딸 - 따님 | 마누라 - 부인 | 자다 - 주무시다 |
| ④ 엄마 - 어머니 | 책방 - 서점 | 먹다 - 잡수다 |
| ⑤ 속옷 - 내의 | 너 - 당신 | 가난하다 - 빈곤하다 |

46.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ㄱ. (시장이 과장에게) 김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일은 내일까지 끝내 주세요.
 ㄴ.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서) 형, 오늘은 제가 내려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ㄷ. (사장인 어머니에게) 엄마, 저녁을 함께 못 해 미안해요./ 사장님, 회의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ㄹ. 부장 : 사장님,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장 : 남 부장, 내가 오히려 미안했네.
 ㅁ. (약속 시간에 늦어서 친구에게) 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어. 정말 미안해.

- ① ㄱ : 이 상황에서 '죄송하다' 대신 '미안하다'는 쓸 수 없군.
- ② ㄴ : 친한 사이의 상위자에게는 '미안하다'도 쓸 수 있군.
- ③ ㄷ : 같은 상대라도 대화 상황에 따라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바꿔 쓸 수 있군.
- ④ ㄹ : 상대의 지위에 따라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구별하여 사용했군.
- ⑤ ㅁ :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 대신 '죄송하다'는 쓸 수 없겠군.



2-5.
의미(의미론)

2-5-2
의미의 성분 분석

문법
53

2-5-2. 의미의 성분 분석 중요도 | 🍀🍀🍀🍀

: 한 단어의 의미를 의미적 성분의 구성체로 보고, 그 의미적 성분을 분석하여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방법을 성분 분석이라고 합니다.

주로, 의미 자질이란 표현으로도 쓰이는데 각 단어의 의미를 각각의 자질로 표시할 수 있고, 자질은 이분법으로 표시되어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의미를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이 때, 의미를 분화하는 자질을 '변별적 자질'이라고 합니다.

예) 소년 - [+사람], [+비성인], [+남성]

소녀 - [+사람], [+비성인], [-남성]

열공 Tip! - 성분 분석

단어의 성분 분석은 문법 문제만으로는 출제된 적이 없고, 비문학 언어 지문으로 출제된 적은 있어 그렇지만, 언어학에서 널리 쓰이는 개념이라 알아두면 전반적인 문법을 알아두는 데 편하게 든다. 그러니 독서 지문 연습하면서 지문의 내용들을 한 번 읽어봐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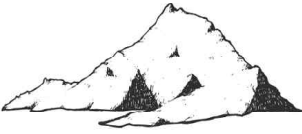
특히, 10. 수능 문제는 실제 출제되었을 때에도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어려운 지문이니깐 더더욱 신경 써서 풀어보렴!

2010학년도 수능 비문학(언어)

언어학에서 변별적 자질은 두 대상이 어떤 특성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은 본래 음운을 변별하는 데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어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변별적 자질은 [+F]나 [-F]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때 'F'는 음성적 특성을, '+/-'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두 음운 /ㅁ/과 /ㅂ/은 두 입술로([양순성])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기가 코를 통과한다는([비음성])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ㅁ/은[+양순성, +비음성], /ㅂ/은 [+양순성, -비음성]이라는 변별적 자질들의 묶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C앞에서 B가 되는 형식(A→B/_C)의 음운 동화 현상에서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각각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과 적용받은 후의 음,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도 각각 또 다른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이때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은 일반적으로 +나 -의 양분적인 값을 가지므로, 말소리가 인간의 기억 속에서 범주적인 양상으로 지각되거나 저장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또한 이러한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한 개의 자질을 선택함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정보를 알려 주는 효과, 즉 상호 예측성을 지니므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별적 자질을 통해 우리는 음운과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전문제유형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음운 간의 대립은 변별적 자질보다는 음성적 특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 ②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변별적 자질을 알면 해당 음운의 모든 음성적 특성을 알 수 있다.
- ④ 어떤 한 음운은 [+F]이면서 동시에 [-F]인 변별적 자질을 가질 수 있다.
- ⑤ 양분적인 값으로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정보 전달의 효율이 낮아진다.

31. 위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비음성]의 A가 [+비음성]의 C 앞에서 [+비음성]의 B가 되는 자음 동화 규칙과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규칙】 A → B / _ C

【실례】 ㄱ → ㅇ / _ ㅁ 국물[궁물]

【실례】 ㄷ → ㄴ / _ ㅁ 맘머느리[만머느리]

【실례】 ㅂ → ㅁ / _ ㄴ 읍내[읍내]

- ① ㉠에 해당하는 ‘ㄱ, ㄷ, ㅂ’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②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군.
- ③ ㉢에 해당하는 ‘ㄴ, ㅁ’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④ ‘읍내’에서 ㉢에 해당하는 ‘ㅂ’과 ‘ㅁ’은 공통적으로 [+양순성]을 갖는군.
- ⑤ ‘국물’에서 ㉢에 해당하는 음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지 못하는군.



2009학년도 수능 비문학(언어)

현대의 문장 부호는 독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적 기호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형태나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옛 문헌에도 오늘날의 문장 부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다. 띄어쓰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옛 문헌에서 이러한 부호들은 더욱 요긴하게 쓰였다.

현대의 마침표나 쉼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 있다. ‘·’은 찍힌 위치에 따라 그 기능이 달랐다. 세로쓰기를 했던 옛 문헌에서 글자의 오른쪽 아래에 찍힌 점은 구점(句點)이라 하는데, 마침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글자 아래쪽 가운데에 찍힌 점은 두점(讀點)이라 하는데, 쉼표와 비슷한 기능을 하였다. ‘구두점’이란 말은 여기서 유래한다. 단락이 끝나고 공백이 오는 경우와 같이 문장이 끝났음이 명백할 때에는 문장 뒤에 구점이 생략된다. <훈민정음해례>나 <용비어천가> 등에 이러한 구두점이 사용되었다.

‘○’은 새로운 단위의 내용이 시작될 때 쓰였다. 각각의 예문이나 단락, 조항 등이 시작하는 곳이나 화제가 전환되는 곳에 사용되었다.

주석을 달기 위해서는 ‘【】’가 사용되었다. 단어나 구절의 뜻을 풀이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 안에 그 내용을 넣었다. 오늘날의 ‘()’, ‘[]’와 기능이나 형태가 유사하다. 다만 구점과 마찬가지로 단락이 끝나는 위치에서는 ‘】’가 생략된다.

㉠ ‘ㄴ’, ‘ㄷ’, ‘ㄹ’은 앞 글자나 앞 어구와 동일함을 표시해 주는 부호인데, 인쇄본보다는 손으로 쓴 필사본에 더 많이 나타난다. 한편 사전류에서는 설명의 대상인 표제어가 용례로 반복되어 나타날 때 ‘—’로 대체하였다. ‘ㄴ’ 등은 바로 앞에 오는 글자나 어구의 반복만 나타낼 수 있는 데 비해, ‘—’는 위치에 상관없이 표제어에 해당하는 것이 그 자리에 들어감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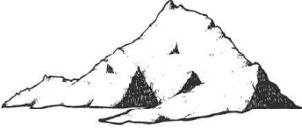
이러한 부호들은 한문 문화권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사용하여 우리의 문자 생활을 다채롭고 정확하게 하였다. 구점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포함되어, 세로쓰기를 할 때 마침표로 사용된다. ‘○’, ‘ㄴ’은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도 쓰이고 있다.

* 이 글에 쓰인 옛 문헌의 부호들은 가로쓰기에 맞게 방향을 바꿔 제시한 것임.

실전문제유형

13. 위 글의 중심 내용은?

- ①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기원
- ②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변화 과정
- ③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종류와 기능
- ④ 옛 문헌에 쓰인 부호의 현대적 수용
- ⑤ 옛 문헌과 현대 문헌의 문장 부호 비교



14. ㉠을 사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 ② 문장 간의 관계를 잘 나타내기 위해
- ③ 띄어쓰기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 ④ 쓰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 ⑤ 글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15. <보기>는 현대 어휘 용례 사전의 일부이다. 위 글을 읽고 옛 문헌에 사용된 부호를 적용해 본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
 ¶ 고량진미도 나물국부터 시작하고, 천리 길도 문
 (a)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법, 나의 오늘 역시 내일의 희망을
 (b) (c)

향해 걸어가는 첫걸음이다. - 이규보(고려 시대의 문인)
 (d)

¶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e)

- ①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두점을 찍었겠군.
- ②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구점을 찍었겠군.
- ③ 옛 문헌이라면 ㉢의 ‘오늘’ 대신에 ‘一’를 사용했겠군.
- ④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를 사용했겠군.
- ⑤ 옛 문헌이라면 ㉤의 ‘¶’ 대신에 ‘○’을 사용했겠군.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쇠고기’와 ‘소고기’는 모두 표준어이다.
 - 옛날에는 ‘쇠고기’를 ‘쇠고기(쇼+익+고기)’라고 했다.
 이 경우 ‘쇼+익(관형격 조사)’는 ‘쇠’로 축약된다.
 -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도퉁고기(돌+익+고기)’라고 했다.

- ① ‘쇠고기’는 옛말의 구조를 고려할 때 소의 고기라는 뜻이군.
- ② ‘쇠고기’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 한 단어로 발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쇠고기’의 옛말은 ‘돼지고기’의 옛말과 그 구조가 달랐다는 말이군.
- ④ ‘소고기’는 동물 이름에 바로 ‘고기’가 붙은 단어이군.
- ⑤ ‘닭고기’의 옛말은 ‘들기고기(들+익+고기)’라고 했다.